

지열배관 파손에 대한 코레일유통(주) 입장

1. 당사의 지열시스템중 지열배관은 수직밀폐형으로 시공되어 외부적 충격을 제외하고 자체적 파손이 있을수 없는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매입배관이며, 2015.11월 가동이후 2018.12.04.일 발파시점 이전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가동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발파로 파손된 1구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구역의 지열시스템 가동은 정상가동되고 있습니다.

2. 제물포터널공사는 지하암반층(지하 43m) 발파를 위하여 NATM 공법으로 시공되고 있는바, 암반층에 매입되어 있는 당사 지열배관에 발파로 인한 충격이 전해졌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파손된 제1구역 지열배관은 바로 발파지점의 수평인접구간이며, 더구나 그 거리가 1m내외라면 파손가능성은 누구나 예측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12월4일 발파후 제1구역 지열배관파손으로 인한 유량누수가 확인되었음은 결코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인접건물에서도 유사지점에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된 것을 보더라도 사고 원인을 쉽게 추론할수 있다 하겠습니다.

3. 사실이 이러함에도 그간 사업시행자 서울터널(주) (시공사: 대림산업))에서는 피해복구에 미온적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감독기관인 서울시에 적절한 관리를 부탁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건대 공익목적으로 시행되는 서울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감독관리를 통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복구가 이루어 지도록 사업시행자를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